

퓨릿 (445180)

반도체 케미컬 국산화의 스페셜리스트

페케미컬 재생기업에서 반도체 케미컬 기업으로 도약

퓨릿은 반도체 케미컬 업체로, 증류탑을 통한 합성, 정제, 재생 공정을 통해 반도체 소재 원료를 생산 및 공급한다. 주요 고객사로는 이앤에프테크놀로지, 동진썬미캠 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포토공정 세정용 소재(신너)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2015년 SK하이닉스향 반도체 신너 원료인 PGME, PGMEA 양산을 시작으로 2020~2021년 반도체급 EEP(에틸3에톡시프로피오네이트), EL(에틸락테이트) 국산화에 성공하며 반도체 케미컬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른 소재 수요 증가 및 고마진 제품 중심의 믹스개선 속 동사는 2025년 매출액 1,430억원(+16.7% YoY)/영업이익 178억원(+27.3% YoY), 2026년 1,481억원(+3.6% YoY)/영업이익 195억원(+13.2% YoY)의 견조한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

투자포인트①. 삼성전자향 반도체 EL 점유율 확대

올해 삼성전자향 반도체 신너 원재료인 EL(에틸락테이트) 점유율이 10%→30%까지 확대되며 제품 믹스 개선 및 탑라인 성장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그림6,7]. 동사의 주요 제품군 중 반도체 EEP, EL은 합성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반도체 소재 원료로, 이익률이 가장 높다(합성13~15% > 정제12% > 재생 5~7%, OPM 기준)[그림1]. 특히 EL은 2021년 동사가 국내 최초 국산화에 성공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중이다.

투자포인트②. 전방 고객사 가동률 증가

2026년의 성장 포인트는 전방 고객사, 특히 삼성전자 가동률 상승에 따른 Q증가에 있다. 올해 높아진 삼성전자향 EEP, EL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방사 가동률 상승에 따른 소재 수요 증가가 실적 수혜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 매출비중의 약 35%를 차지하는 PGME, PGMEA은 이미 SK하이닉스 가동률이 최대치에 근접한 수준임을 고려시 추가적인 Q 성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포인트③. '26년 1,2공장 증류탑 증설, '27년 이후 신규 제3공장 계획

동사는 CAPA 확충을 위해 2026년 기존 경주 공장 잔여 부지에 증류탑 증설을 계획중이며, 2027년 이후 충남 제3공장을 준비중이다. 2026년 증설되는 증류탑 라인 역시 고마진 제품의 삼성전자향 반도체 EEP, EL 합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충남 3공장은 기존 제품과 더불어 동사가 추가적으로 국산화를 시도 중인 신규 원료의 생산까지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원료 역시 합성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고마진 제품으로 양산 시점 이후부터는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Valuation: 2026년 기준 9.1배, Peer Group 평균 10.9배

동사의 현재 주가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R 9.1배로, 과거 PER 밸류에이션 밴드 6~18배 하단에 근접해 있으며[그림13] 국내 동종업계 평균 PER 10.9배 대비 저렴한 수준이다[그림11]. 그간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인 ①2022년 이후 실적 역성장, ②2024년 6월 이후 반도체 업종 주가 약세, ③주요 고객사 삼성전자의 부진은 해소 국면이다. 향후 고마진 제품 중심으로의 체질개선 및 고객사 업황 개선 고려 시 동사의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Company Brief

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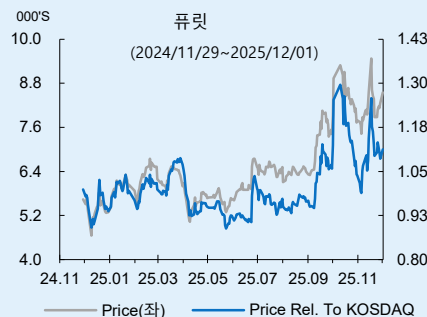
액면가 500원
증가(2025.12.02) 8,54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8십억원
발행주식수	1,719만주
시가총액	140십억원
외국인지분율	2.5%
52주 주가	4,650~9,470원
60일평균거래량	346,538주
60일평균거래대금	3.0십억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8	35.5	52.4	55.2
상대수익률	7.3	19.3	27.8	18.7

Price Trend



FY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억원)	1,067	1,374	1,205	1,225
영업이익(억원)	100	143	128	140
순이익(억원)	74	116	121	118
EPS(원)	5,401	838	837	705
BPS(원)	19,061	2,808	4,965	5,562
PER(배)	-	-	13.0	7.5
PBR(배)	-	-	2.2	1.0
ROE(%)	33.0	35.5	19.8	13.4
배당수익률(%)	-	-	-	2.3
EV/EBITDA(배)	-	5.3	4.7	3.6

주:K-IFRS 별도 요약 재무제표

[Mid-Small Cap]

신희철 2122-9187 shc4235@imfnsec.com

기업개요: 폐케미컬 재생기업에서 반도체 케미컬 기업으로 도약

고순도 반도체급 케미컬
제품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퓨릿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주요 생산 방식은 증류탑을 통한 원료 합성, 정제, 재생으로 구분된다. 2014년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면허를 바탕으로 한 재생 사업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합성 및 정제 공정을 통한 고순도 반도체급 케미컬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주요 고객사로는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동진썬미캠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포토공정 세정용 소재(신너)를 공급하고 있다[그림1,4].

2020년 반도체급 EEP,
2021년 반도체급 EL
국산화에 성공

동사는 2015 SK하이닉스향 반도체 신너 원료인 PGME, PGMEA 양산을 시작으로 2020년 국내에서 두번째로 반도체급 EEP(에틸3에톡시프로피오네이트) 양산, 2021년 국내 최초로 반도체급 EL(에틸락테이트)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사 매출 내 반도체급 원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반도체 케미컬 사업부문의 전사 매출비중은 60% 수준이었으나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75%까지 상승했다[그림3]. 반도체급 원료 신규제품 효과 및 고마진 제품 중심으로의 믹스 개선 속 동사는 실적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반도체 케미컬의 전사
매출 비중은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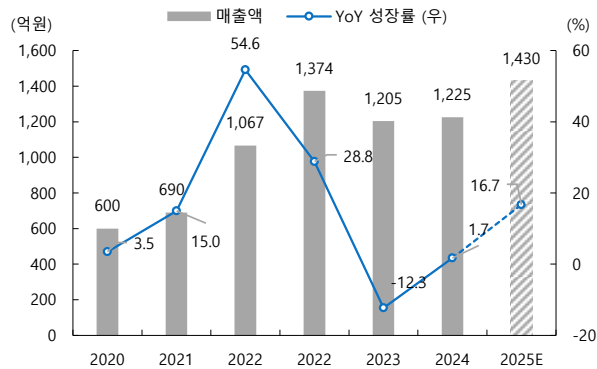
사업부문은 크게 반도체용 케미컬, 디스플레이용 케미컬, 산업용 케미컬로 분류된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반도체 케미컬 75%, 디스플레이 케미컬 4%, 산업용 케미컬 14%, 기타 7%로 나뉜다. 합성과 정제 공정을 통해 1차적으로 고순도 반도체 케미컬 원료를 생산한 뒤, 생산 과정에서의 부산물(저순도 제품)을 산업용으로 판매하여 원가 효율을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1. 퓨릿 제조 공정별 핵심 제품 및 수익성 구조

구분	합성	정제	재생
핵심 제품	반도체급 EL 반도체급 EEP	PGME, PGMEA	SBA SR-200P
주요 용도	반도체 포토 공정 (신너 원료)	반도체 포토 공정 (신너 원료)	MLCC 세정 공업용
최종 고객사	동진썬미캠→삼성전자	이엔에프테크놀로지→SK 하이닉스	기타
수익성	높음 (OPM 12% 이상)	중간 (OPM 10~12%)	낮음 (OPM High single, 효율화 목적)
비고	국산화 및 MS 확대에 성장 주도	원재료비용+정제마진	폐기물 면허 필요 (1 공장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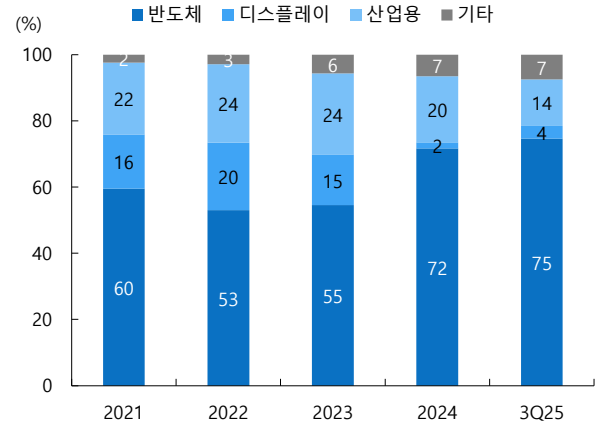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퓨릿 연도별 매출액 및 매출액 성장률



자료: Quant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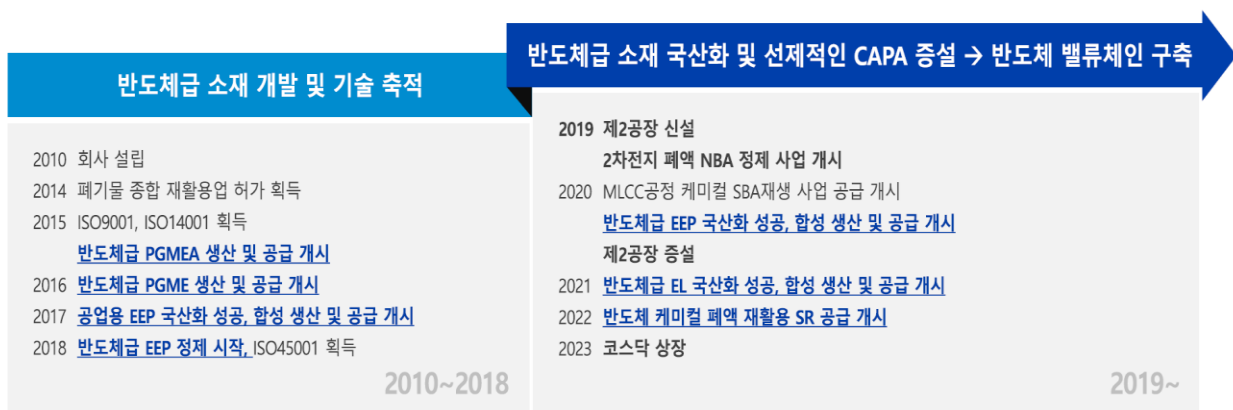
그림3. 퓨릿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 추이



자료: 퓨릿,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퓨릿 제조 공정별 핵심 제품 및 수익성 구조

15년 반도체급 소재 생산을 시작으로 빠르게 볼륨 및 이익 성장 궤도 진입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퓨릿 2022~2025년 사업부문별 실적 테이블 및 전망치

(단위: 억원)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E	2022	2023	2024	2025E
매출액	282	297	320	328	338	355	369	335	1,374	1,205	1,225	1,397
YoY 증감률	-13%	-6%	13%	15%	20%	20%	16%	2%	29%	-12%	2%	14%
QoQ 증감률	-1%	5%	8%	2%	3%	5%	4%					
반도체용	195	218	231	235	234	267	293	266	729	658	879	1,059
YoY 증감률					0.2	22%	27%	13%	15%	-10%	34%	21%
디스플레이용	11	4	3	4	12	12	16	14	280	184	23	54
YoY 증감률					0.1	2.1	3.9	2.2	60%	-34%	-88%	141%
산업용	57	55	65	68	61	46	43	39	326	294	245	188
YoY 증감률					0.1	-0.2	-0.3	-0.4	41%	-10%	-17%	-23%
기타	19	19	20	22	31	30	19	17	39	68	80	96
YoY 증감률					62%	54%	-8%	-22%	55%	76%	17%	20%
매출원가	227	240	256	257	274	283	287	258	1,155	988	980	1,101
매출원가율	81%	81%	80%	78%	81%	80%	78%	77%	84%	82%	80%	79%
매출총이익	54	56	64	71	65	72	82	77	219	217	246	296
매출총이익률	19%	19%	20%	22%	19%	20%	22%	23%	16%	18%	20%	21%
판매비 및 관리비	26	26	28	26	31	29	30	28	76	88	106	118
판관비율	9%	9%	9%	8%	9%	8%	8%	8%	6%	7%	9%	8%
영업이익	28	31	36	45	33	42	53	50	143	128	140	178
영업이익률	10%	10%	11%	14%	10%	12%	14%	15%	10%	11%	11%	13%
YoY 증감률	-31%	-13%	23%	93%	19%	38%	47%	10%	43%	-10%	9%	27%
QoQ 증감률	20%	10%	16%	27%	-26%	27%	24%	-6%				
세전이익	31	33	32	47	40	44	54	50	140	128	143	187
당기순이익	25	29	26	38	32	38	44	35	116	121	118	149
당기순이익률	9%	10%	8%	12%	10%	11%	12%	10%	8%	10%	10%	11%
YoY 증감률	-23%	-8%	18%	10%	28%	31%	70%	-9%	55%	5%	-2%	26%
QoQ 증감률	-26%	13%	-9%	46%	-15%	16%	18%	-22%				

자료: Quant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①. 삼성전자향 반도체 EL 점유율 확대

올해 삼성전자향
반도체급 EL 점유율은
10%→30%까지 확대

올해 삼성전자향 반도체 신너 원재료인 EL(에틸락테이트) 점유율이 10%→30%까지 확대되며 실적의 양적, 질적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동사는 2025년 매출액 1,430억원(+16.7% YoY)/영업이익 178억원(+27.3% YoY), 2026년 1,481억원(+3.6% YoY)/영업이익 195억원(+13.2% YoY)의 견조한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

반도체용 EL의 경우 과거 유럽산 비중이 높았으나, 동사가 2021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 해당 제품을 동진썸미캡 및 DOW케미칼을 통해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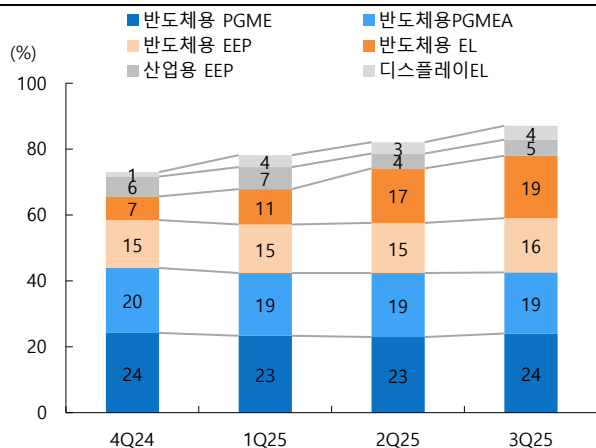
삼성전자향 EL 점유율
확대는 중장기적인 Q
증가로 연결

반도체 케미컬은 고객사의 공정 수율과 직결되어 켈테스트가 까다롭고, 한번 벤더가 확정되면 쉽게 변경되지 않아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다. 따라서 이번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는 퓨릿의 기술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Q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한다.

반도체용 EL 및 EEP는
동사 제품 중 가장 높은
수익성(OPM 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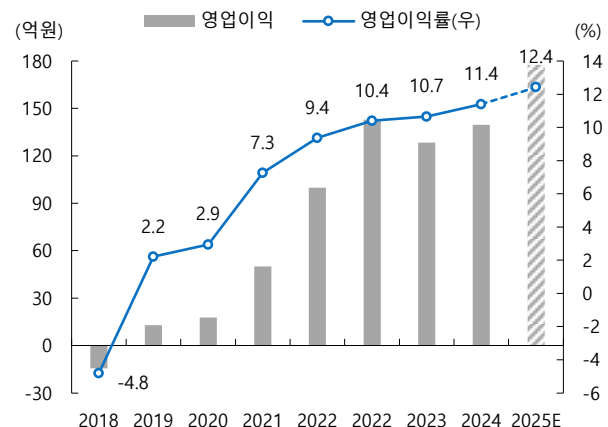
반도체용 EL 매출비중 확대는 수익성 개선으로도 연결된다. 반도체용 EEP, EL은 고마진의 합성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합성 공정의 OPM은 12%~15% 수준으로, 같은 반도체급 원료지만 정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SK하이닉스향 PGME, PGMEA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OPM 10~12%). 삼성전자향 EL 점유율 확대와 함께 동사의 매출비중 내 합성공정 제품(EEP, EL)의 매출비중은 약 40% 수준까지 확대되며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한다[그림6,7].

그림6. 삼성전자향 반도체용 EL 점유율 확대와 함께 동사 매출 내 EL 매출비중은 3Q25 기준 19%까지 증가



자료: 퓨릿,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고마진 공정 제품 매출비중 확대와 함께 동사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음



자료: 퓨릿,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②. 전방 고객사 가동률 증가

중단기 실적 성장
포인트는 전방 고객사의
가동률 상승과 직결

동사의 중단기 실적 성장 포인트는 전방 고객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동률 상승에 있다. 2026년은 2025년과 같은 시장 점유율 확대(반도체 EL MS 10%→30%)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고객사의 가동률 증가가 소재 수요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제품이 원료로 사용되는 반도체 신너는 노광 공정 내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전방 칩메이커들의 가동률(웨이퍼 투입량)과 절대적으로 연동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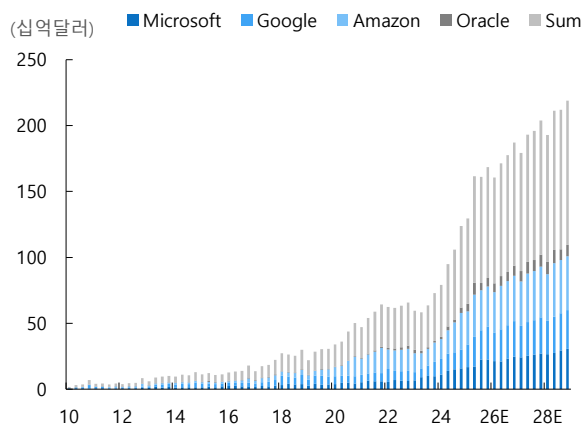
올해 비교적 부진했던
삼성전자의 가동률
상승에 주목할 필요

특히 2026년 삼성전자의 가동률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선점을 통해 올해 이미 높은 가동률을 유지한 반면, 삼성전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수익성을 위해 감산 전략을 취하는 등 비교적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최근 삼성전자 역시 선단 및 레거시 공정의 가동률이 회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HBM뿐만 아니라 DRAM
수요 증가는 삼성전자의
선단 및 레거시 공정
가동률 확대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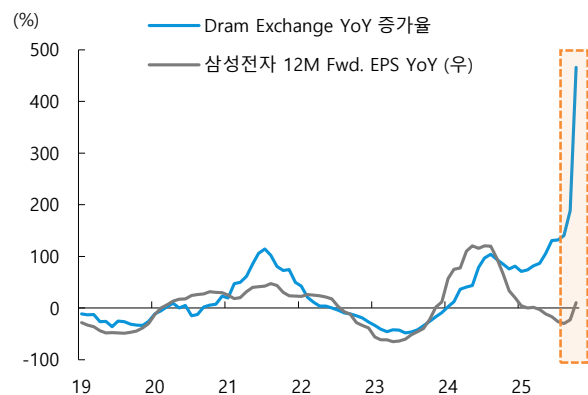
이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쟁적인 AI 서버 CAPEX 집행이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DRAM 수요 폭증으로도 연결되고 있음에 기인한다[그림8]. 추가로 일반 IT 세트(스마트폰, PC) 고객사들의 리스탁킹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DRAM 가격 상승 속 레거시 공정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9]. 이와 더불어 엔비디아향 HBM3E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차세대 AI 가속기인 Rubin향 HBM4 쉐 테스트 통과 가능성 역시 높아진 상황으로, 삼성전자의 선단 및 레거시 공정 가동률의 가파른 회복세는 2026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8.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서버 CAPEX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DRAM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 속 삼성전자 이익전망치 역시 상향되고 있음



자료: Refinitiv,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③. '26년 1,2공장 증류탑 증설, '27년 신규 제3공장 계획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2026년 라인 증설,
2027년 이후 충남
제3공장 신설 계획중

제3공장의 생산능력은
기존 제1,2공장을 합친
수준, 향후 신제품 원료
생산 역시 고려중

전방 고객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당사는 2026년 기존 1, 2공장 잔여 부지 내 증류탑 증설을 계획중이며, 2027년 전후로 충남 예산에 제3공장 신설을 계획중이다[그림10]. 동사의 현재 가동률은 2025년 3분기 기준 75%이며, 합성(반도체 EEP, EL), 정제(PGME, PGMEA) 품목의 가동률은 이미 최대치에 근접했다. 전방산업 가동률 고려 시 2026년 하반기 증설될 생산시설 역시 삼성전자향 반도체 EEP, EL 합성공정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고마진 제품의 매출비중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 제3공장 준공 이후에는 CAPA 증가 속 매출 및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3공장은 기존 정제, 합성 공정의 PGME/PGMEA, EEP/EL뿐만 아니라, 동사가 추가적으로 국산화를 추진중인 반도체 소재 원료의 생산거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원료 역시 합성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고마진 제품으로, 양산 시점 이후부터는 동사의 매출증가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제3공장의 생산능력은 기존 제1,2공장을 합친 수준(연CAPA 1,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준공 시점은 2028년 전후로 현재 부지 매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10. 퓨릿 제조 공정별 핵심 제품 및 수익성 구조



제1공장 리사이클링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

 <p>위치 경주 안강읍 두류길 249-278</p>	주요 생산 제품 재생 - SBA - SR-200
	정제 - MECH - MEG

제2공장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

 <p>위치 경주 안강읍 사박길 19-6</p>	주요 생산 제품 합성 - EEP(공업용 포함) - EL(LCD용 포함)
	정제 - PGMEA - PGME

자료: 퓨릿, iM증권 리서치본부

Valuation: 2026년 기준 9.1배, Peer Group 평균 10.9배

2026E PER 9.1배,
동종업계 평균 10.9배
대비 Valuation
메리트 충분

동사의 현재 주가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R 9.1배로, 2023년 말 상장 이후 PER 밸류에이션 밴드 6~18배 하단에 근접해 있다[그림13]. 국내 동종업계 평균 PER은 11배 수준으로[그림11], 향후 고마진 제품 중심으로의 체질개선 및 고객사 업황 개선 고려 시 동사의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하다.

그간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인 ①2022년 이후 실적 역성장, ②2024년 6월 이후 반도체 업종 주가 약세, ③주요 고객사 삼성전자의 부진은 대부분 해소 국면이다. 동사는 2025년 반도체 EL의 국내 MS 확대 속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 역시 삼성전자 가동률 회복에 따른 견조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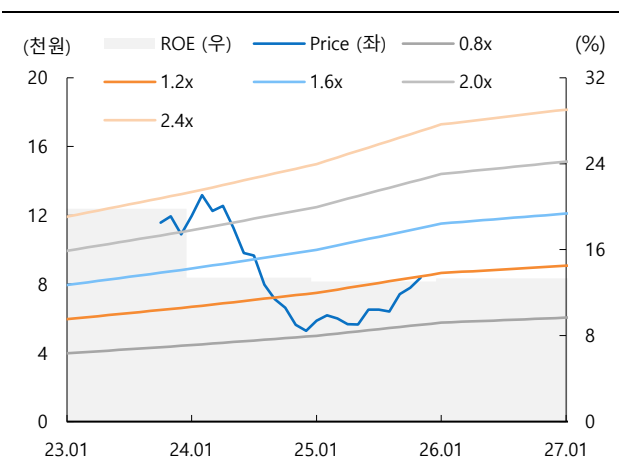
그림11. 퓨릿 및 국내 Peer Group Valuation

종목명	주가	시가 총액	매출액			PSR			PER			PBR		
			24	25E	26E	24	25E	26E	24	25E	26E	24	25E	26E
퓨릿	8,260	142	123	143	148	1.2	1.0	1.0	12.0	9.5	9.1	1.5	1.3	1.1
동진세미캠	36,150	1,859	1,408	1,186	1,277	1.3	1.6	1.5	12.0	17.4	11.8	1.9	1.7	1.5
이엔에프 테크놀로지	44,700	639	582	675	745	1.1	0.9	0.9	20.5	10.8	8.7	1.6	1.4	1.2
솔브레인	262,000	2,038	863	932	1,079	2.4	2.2	1.9	17.2	19.3	13.0	2.0	1.9	1.6
한솔케미칼	238,000	2,698	776	888	990	3.5	3.0	2.7	22.0	17.3	14.7	2.8	2.5	2.2
원익 머트리얼즈	30,650	386	311	319	344	1.2	1.2	1.1	12.1	9.0	8.6	0.8	0.7	0.7
Peer Group Avg.						1.8	1.7	1.5	16.0	13.8	10.9	1.8	1.6	1.4

자료: 퓨릿,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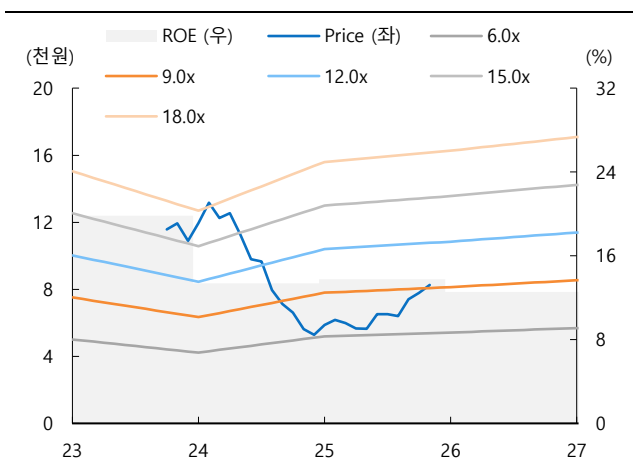
주1: Peer Group Valuation은 Quantiwise 추정치, 퓨릿은 당사 추정치 기준

그림12. 퓨릿 12개월 선행 PBR Band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3. 퓨릿 12개월 선행 PER Band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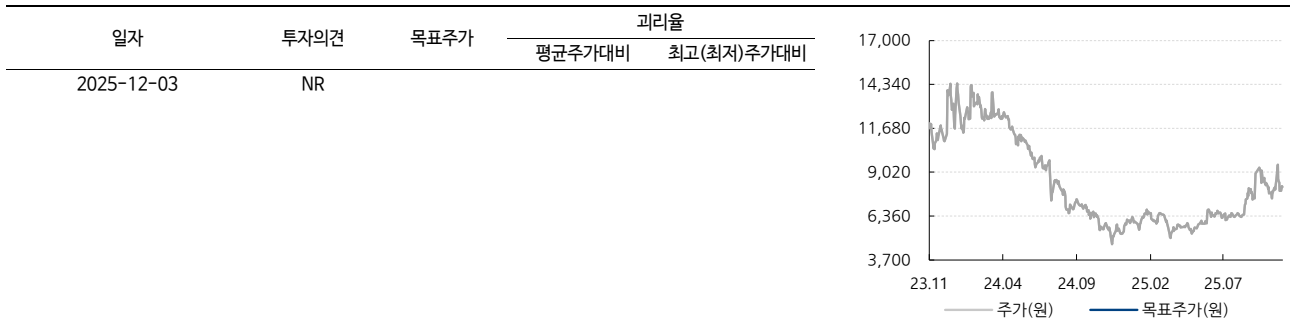
K-IFRS 별도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억원,%)	2021	2022	2023	2024
유동자산	319	342	516	476	매출액	1,067	1,374	1,205	1,225
현금 및 현금성자산	86	97	109	201	증가율(%)	54.6	28.8	-12.3	1.7
단기금융자산	-	-	-	-	매출원가	929	1,155	988	980
매출채권	136	136	132	144	매출총이익	138	219	217	245
재고자산	94	105	88	126	판매비와관리비	38	76	88	106
비유동자산	249	305	476	563	연구개발비	2	3	5	6
유형자산	245	292	451	549	기타영업수익	-	-	-	-
무형자산	-	3	3	2	기타영업비용	-	-	-	-
자산총계	568	647	992	1,039	영업이익	100	143	128	140
유동부채	305	258	158	104	증가율(%)	99.3	42.9	-10.1	8.7
매입채무	66	69	51	49	영업이익률(%)	9.4	10.4	10.7	11.4
단기차입금	212	124	-	-	이자수익	0	1	5	8
유동성장기부채	1	1	0	0	이자비용	3	4	-	-
비유동부채	0	1	1	2	지분법이익(손실)	-	-	-	-
사채	-	-	-	-	기타영업외손익	0	0	0	4
장기차입금	-	-	-	-	세전계속사업이익	97	140	128	143
부채총계	305	260	159	106	법인세비용	23	25	7	25
지배주주지분	-	-	-	-	세전계속이익률(%)	9.1	10.2	10.6	11.7
자본금	69	69	84	84	당기순이익	74	116	121	118
자본잉여금	158	158	452	452	순이익률(%)	7.0	8.4	10.0	9.6
이익잉여금	33	150	270	377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	-	-	-
기타자본항목	2	2	2	2	기타포괄이익	-1	1	0	-3
비지배주주지분	-	-	-	-	총포괄이익	73	117	121	115
자본총계	263	387	833	933	지배주주귀속총포괄이익	-	-	-	-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영업활동 현금흐름	11	175	128	149	주당지표 (원)				
당기순이익	74	116	121	118	EPS	5,401	838	837	705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1	30	36	48	BPS	19,061	2,808	4,965	5,562
무형자산상각비	-	1	1	1	CFPS	7,647	1,059	1,091	996
지분법관련손실(이익)	-	-	-	-	DPS	-	-	-	120
투자활동 현금흐름	-65	-77	-380	31	Valuation(배)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65	76	200	148	PER			13.0	7.5
무형자산의 처분(취득)	-	-	-	-	PBR			2.2	1.0
금융상품의 증감	-	-	-	-	PCR			10.0	5.3
재무활동 현금흐름	81	-87	265	-89	EV/EBITDA		7.7	4.7	3.6
단기금융부채의증감	82	-86	-45	-80	Key Financial Ratio(%)				
장기금융부채의증감	-	-	-	-	ROE	33.0	35.5	19.8	13.4
자본의증감	-	-	-	-	EBITDA이익률	12.3	12.6	13.7	15.4
배당금지급	-	-	-	-8	부채비율	116.0	67.1	19.1	11.4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27	11	12	91	순부채비율	47.9	7.0	-13.1	-21.5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59	86	97	109	매출채권회전율(x)	9.9	10.1	9.0	8.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86	97	109	201	재고자산회전율(x)	13.8	13.8	12.5	11.5

자료 : 퓨릿, iM증권 리서치본부

퓨릿 투자이전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이전]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추천투자등급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5-09-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91%	8.3%	0.7%